
대용유 대신 모유를 !

저능력우는 과감한 도태를 !!

(협 회)

85년은 “소”해였으면서 소에 관한 산업은 빛을 보지 못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새 해는 지난 해와 같은 길을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낙농가들이 땀과 피를 흘려 생산한 우유는 생산량을 소비가 따르지 못하여 체화되어 일부 유업체에 납유하는 낙농가들은 우유대마저 제 날자에 받지 못하였고 신규 낙농가들은 생산된 우유 납유처를 찾지 못하여 납유를 위하여 유업체를 찾아 구걸하기에 이르는등 85년도의 낙농계는 불황 그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낙농가 보호를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유는 체화되어 상당량이 금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우유 비수요기인 3월 중순까지는 계속 체화될 것이며 잘못되면 지난 해와 같이 성수기에도 체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낙농가들은 당국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체화되는 우유량 해소를 위하여 힘 자라는 모든 방법을 동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송아지에게 대용유를 먹이지 말고 모유를 먹이는 일입니다. 1980년도 우유가 체화되었을 때도 연간 2800톤의 대용유가 수입되던 것을 중단 모유를 먹여 우유체화가 곧 해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우유체화는 햇수로 이미 3년을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산 대용유의 우유성분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만 국산이지 국산이 아닙니다. 대용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낙농가들이

우리가 생산한 우유가 체화되어 간접, 직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외국의 낙농가를 위하여 외국의 우유를 소비하여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내가 생산한 우유를 내소에게 먹인다.”는 다짐으로 대용유 대신 모유를 먹이는 운동을 전개하여 우유체화를 다소라도 막아야 하겠습니다. 85년도에 대용유 원료로 6천여톤의 분유류가 수입되었으며 금년에는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다면 1만여톤의 분유류가 대용유 원료로 수입되리라 봅니다.

둘째 저능력우의 도태입니다. 물론, 소값이 떨어져서 도태우를 출하하였을때 우리가 바라는 값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유생산량이 적은 소, 임신이 잘 안되는 소등을 계속 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유가 체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우유체화를 다소나마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저능력우의 과감한 도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전 낙농가 및 가족들이 우유홍보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유를 몰라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우유급식도 계획량의 73%수준입니다. 또 국민 1인당 연간 20kg 남짓 우유를 먹으면서 우유를 먹으면 비대해진다는등 이유를 들어 우유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버터는 보지도 못하고 먹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모두가 남을 위하는 일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여 우유체화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